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20 백일설의 그대 그 사람	00 KBS 뉴스광장	00 토틀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30 골든 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토틀생활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20 채널A 뉴스 특보	00 여류방송특선 글로벌 다큐멘터리 <인류, 우리 모두의 이야기>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재)	00 MBC 여성토론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2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뉴스 12	50 특파원 현장보고(재)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4색	00 SBS12뉴스 30 닥터 365 35 KBC 열린토론회(재)
30 뉴스 특급	00 TV야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30 영상앨범 산(재)	10 MBC 네트워킹특선 <무심천 수달 1000일의 여화>	35 영상기획 한국의 명소
40 직인직실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다큐+감성	00 SBS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55 정웅관의 시사병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슈로링 동물탐정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뉴스 10 키즈CSI 과학수사대 40 헬로킴지 아하 과학탐험대	10 우리야이야기 달라졌어요(재)
55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토틀 생활 체조(재)	25 꾸러기 캐리커스 코리요 55 법상의 신(재)	30 퓌? 퓌! 키즈쿨	00 매일연마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들의 세계 40 남도지오2레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20 갈 데까지 가보자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특집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20 백일설의 그대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00 SBS 8뉴스 35 KBC 8뉴스 55 생활의 달인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25 MBC 일일특별기획 <여마의 정원>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긴급출동 24시	00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00 월화 특별기획 <아경꾼 일지>	00 월화드라마 <유혹>
00 내조의 여왕(재)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더 라인	15 월랑컴즈 기쁘지 아니한가
10 모쿠드라마 싸인(재) ①:20 부부극장 공작(재)	30 TV, 책을 보다(재) ①:10 T 타임 40 일약특독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걸작드라마 <오편 블랙 시즈2> ①:35 KBS 글로벌대기획 색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2014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코리아 투어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골프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가족을 위한 식단>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인문계 주재별 기출분석>	14:45 미연마이로봇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과테말라>(재)	15:15 오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제로니모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캄보디아 반도>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6:00 덩둥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금오열도>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다큐프라임 <문명과 수학>
08:00 덩둥명 유치원	13:1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2:45 달라졌어요
08:20 두다다(재)	13:3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16:45 콤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8:35 방귀대장 뽀뽀이	13:5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뽀이	24:05 지식채널e(재)
08:50 콤디와 친구들	14:15 와글와글 친구들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24:10 EBS 인문학 특강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20 풀뿌리 패파는 즐거워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4:10 EBS 인문학 특강
09:2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인문학 특강
09:35 뽀뽀이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	01:00 EBS 걸작 다큐멘터리

EBS플러스1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재별 기출분석>	12:15 승승장승 <수학 I A형>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13:05 " <수학 II>
02:30 " <수학 I>	14:00 " <국어 A형>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06:40 암축탐스런 <물리 I>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	20:00 EBS-N제 <국어 A형>(재)
09:10 " <수학 I>(재)	21:00 " <수학 A형>(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해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EBS플러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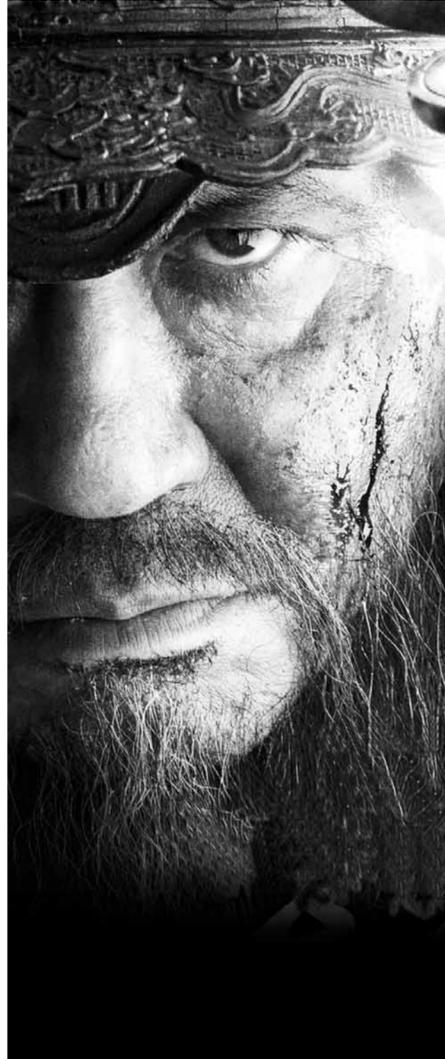
07:00 2014 공민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나의 성공비결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대비 강좌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9:50 " <수학 1(상)>	18:00 TV 중학 <전과목 5-1>
10:30 " <역사 1>	18:00 TV 중학 <문학 3>
11:10 " <국어 ③④>	18:40 " <비문학 3>
11:50 " <수학 2(상)>	19:20 15일의 기적 <과학 ①>
12:30 15일의 기적 <국어 ①(하)>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3:10 " <영어 ①>	20:40 " <영어>
13:50 " <수학 ①(하)>	21:20 " <과학>
14:30 " <사회 ①(하)>	22:00 등급산공 <수학 3-2>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15:5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23:20 중학+포스 영문법 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4일(음 7월 9일 丁未)

子	36년생 문혀 버릴 뻔한 사실이 드러난다. 48년생 믿어도 된다. 60년생 연결 해주는 이의 역할이 지대하다. 72년생 순식간에 나타나서 번개 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 84년생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알차다. 행운의 숫자 : 48, 65	午	42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 쫓아 할 형국이다. 54년생 부담감을 버리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대단히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날이다. 78년생 의심스럽다면 몇 번이고 확인하자. 행운의 숫자 : 53, 78
丑	37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다. 49년생 주관에 사로잡힌다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61년생 확실한 아픔이 필요한 때이다. 73년생 문제점이 보인다. 85년생 믿는 도끼도 세심하게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71, 33	未	43년생 손바람 날 정도로 빨리 처리해야만 효과를 보느라. 55년생 의외의 인물과 만남이 있으리라. 67년생 화귀하다 보니 지대한 전착을 보이겠다. 79년생 조정해야 할 것이 있으나 중간 점검 해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6, 66
寅	38년생 목표에 이르기 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느니라. 50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62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다. 74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2, 86	申	44년생 핵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곁돌다가 하루가 다 간다. 56년생 과거사의 정산은 빠를수록 좋다. 68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척결이 시급하다. 80년생 똑같은 양상이더라도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행운의 숫자 : 38, 08
卯	39년생 심오하고 미묘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입지에 놓인다. 51년생 주권을 갖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알고도 속아주는 입장이 된다. 75년생 시시한 것을 가까이 하면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14, 90	酉	45년생 일치하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재고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날이다. 69년생 실기 된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81년생 일취일장할 수 있는 성과가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57, 16
辰	40년생 투철한 소명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52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적응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우선시 해야 할 절실한 문제가 보인다. 76년생 해묵은 일이 맑고하게 해결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30, 06	戌	46년생 역마가 중중하니 몸이 돌아도 부족할 판이다. 58년생 지금 관리해 두는 것이 이익이다. 70년생 양호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모양새다. 82년생 확대 해석해서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8, 25
巳	41년생 소기의 성과에 따른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다. 53년생 우연한 기회가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65년생 만남과 교류 속에 발전을 이끄는 정보가 있다. 77년생 서로 탐색하는 시기를 갖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2, 81	亥	47년생 통념과 상식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59년생 원동력이 될 만한 요소들을 소중히 다뤄야 하느니라. 71년생 단독으로 행하지 말고 길잡이와 함께 하도록 하자. 83년생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월하다. 행운의 숫자 : 75, 8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 영화 '명량' 흥행 회오리

연일 신기록... 일일 100만 관객 시대 첫 기록  
목직한 소재 시원한 해전으로 통쾌하게 풀어

이순신의 '명량해전'을 그린 영화 '명량'이 여름 극장가를 뒤 흔들고 있다.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그야말로 관객들을 끌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로 '대세남' 하정우와 '꽃미남 스타' 강동원이라는 '필승카드'를 내건 '군도:민란의 시대'는 '명량'이 만들어진 예상 밖의 흥행 회오리에 빠지며 하루 20만 명 언저리에서 횡보하고 있다.

경쟁작을 단박에 물리치는 '명량'의 육일승천(旭日昇天) 기세에, 일각에서는 '명량'이 올해 첫 1000만 영화가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명량' 거둬하는 신기록 행진=개봉 첫날 68만 명을 동원하며 '군도'가 세운 역대 개봉일 최대 관객 수 기록(55만 명)과 '광해:왕이 된 남자'가 보유한 평일 최대 관객 수 기록(67만 명)을 갈아치우며 시작한 '명량'은 이튿날 70만 명을 끌어모으며 전날 자신이 세운 평일 최대 관객 수 기록을 다시 썼다.

또, '군도'(2014), '설국열차'(2013),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트랜스포머 3'(2011)가 공동 보유한 역대 최단 기간 200만 돌파와 300만 돌파 기록도 각각 하루씩 앞당겼다.

특히 개봉 나흘째인 토요일에는 약 123만 명을 끌어모으며 '트랜스포머 3'가 세운 역대 일일 최대 관객 수 기록(95만 6천 500명)을 다시 쓰며 처음으로 일일 100만 관객 시대를 열었다.

◇목직한 드라마+통쾌한 해전 '통했다'='명량'은 조선 중기의 일대 사건 임진왜란(1592~1598년)을 배경으로 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영화는 백의종군 후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부임한 이순신이 12척 배로 300여 척 적선을 궤멸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순신이라는 목직한 소재를 바탕으로 했기에 드라마 전개가 느리고 극의 톤도 무겁다. 그러나 장장 1시간에 이르는 '해전'은 이 같은 전반부의 무거운 분위기를 털어낸다.

구루지마(류승룡)와 이순신이 벌이는 심리전, 화포를 이용한 조선군과 왜군의 대결, 육박전 등 다채로운 전투기술이 선상에 펼쳐진다. 생동감 있는 전투장면은 화려한 미술과 웅장한 음악, 속도감 있는 촬영이 더해지면서 더욱 빛을 발한다.

◇우러에서 환호로=결과적으로 흥행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명량'의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아니었다. 김한민 감독은 시작부터 이순신 정신을 캐릭터로 아니라 전투 그 자체를 담고자 했다. 기존 화술로는 펼쳐내기 어려웠고, 규모도 화법도 투자자들에게 생소했다. 이 때문에 영화 제작이 본격화하기 전 '명량' 프로젝트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700만 명을 돌파한 전작 "최종병기 활"(2011)이 없었다면 '명량'은 어렵도 없는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

"캐릭터가 드라마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잇달았지만, 김 감독은 "해전까지 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캐릭터"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끈기있게 밀어붙였다.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이 많았고, 음향을 수정하는 작업 등 제작업이 이어졌다. 김 감독은 후반작업에만 1년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변의 우려는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개봉과 함께 일소됐다.

◇올해 첫 1천만 관객 돌파할까? =날마다 흥행기록을 세울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현재의 추세라면 10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작품에 대한 입소문이 늘어나고, 평점도 8.9점(네이버)으로, 경쟁작인 '군도'(7.4점)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8.7점)보다 높다.

실제로 '명량'이 개봉한 지난달 30일부터 8월2일까지 박스오피스 10위까지의 관객은 544만 2126명을 동원했다. 이는 전주 같은 기간인 7월23일~26일 342만 6773명을 동원한 것에 비해 2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오는 6일 개봉하는 한국판 캐리비안의 해적인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흥행 여부가 1000만 동원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영화가 교훈적이고, 역사를 다루고 있어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보고 싶어 부담이 없다"며 "1천만 돌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 “찌끄레기’ 별명 꼬마애들까지 좋아해요”



### MBC '왔다! 장보리' 주인공 이재화 역 김지훈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불러줄 줄은 몰랐는데 어른들은 물론이고, 놀이터에 가면 꼬마애들도 저 보고 '찌끄레기'다"라고 반가워해요. (웃음)"

시청률 20%를 넘어서 계속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의 이재화가 그 주인공. 이재화를 연기하고 있는 김지훈(33·사진)은 최근 만났다.

"요즘 인기를 실감합니다. 초등학생 조카들도 우리 드라마를 재미있게 봐요. 아이들은 조금만 지루해도 딴짓 하잖아요. 그런데 선악이 분명히 걸려 있어서 그런지, 코믹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그런 인기 드라마에서 '찌끄레기' 이재화는 별명과 달리 백마 탄 왕자님 역할이다. 여주인공 보리(오연서 분)가 일자무식에, 애까지 딸린 가난한 미혼모임에도 보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그녀를 위해 헌신한다.

"물론 현실과 결부시키면 납득하기 어려운 관계죠. 하지만 전 두 사람 사이에 운명적인 이끌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어린시절을 함께 보냈고 그때도 재화가 보리(당시 이름은 은비)에게 끌렸던 거 같아요. 재화는 보리가 은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만, 둘 사이에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보리에게 마음이 가는 것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운명적인 이끌림이라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현재 '왔다! 장보리'는 보리의 출생의 비밀이라는 클리어맥스를 향해 달려가며 시청률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아내의 유혹'으로 드라마의 문법을 바꿨다는 평가를 들은 김순옥 작가는 '왔다! 장보리'에서도 자신의 전매특허인 설 세 없는 에피소드 속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순옥 작가님의 특기가 빠른 전개잖아요. 우리 드라마를 보다가 다른 드라마를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초반부터 촘촘히 준비해놓은 설정과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면서 강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을 오묘하게 얽어놓았고,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김순옥 작가님의 특기가 빠른 전개잖아요. 우리 드라마를 보다가 다른 드라마를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초반부터 촘촘히 준비해놓은 설정과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면서 강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을 오묘하게 얽어놓았고,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김순옥 작가님의 특기가 빠른 전개잖아요. 우리 드라마를 보다가 다른 드라마를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초반부터 촘촘히 준비해놓은 설정과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면서 강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을 오묘하게 얽어놓았고,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김순옥 작가님의 특기가 빠른 전개잖아요. 우리 드라마를 보다가 다른 드라마를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초반부터 촘촘히 준비해놓은 설정과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면서 강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을 오묘하게 얽어놓았고,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